



유럽은 지금 현대미술과 사랑에 빠졌다

제 13회 카셀 도큐멘타가 9일 개막. 9월 16일까지 100일간 계속된다. 사진은 중국 작가 안 레이의 '제한된 아트 프로젝트'./연합뉴스

독일의 작은 소도시 카셀이 지금 유럽 현대 미술계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독일 카셀 도큐멘타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면서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카셀 도큐멘타 현장을 소개한다.

■ 독일 카셀 도큐멘타 가보니

전준호·양혜규 등 55개국 150명 참여... 전시장 32곳

5년마다 개최... 흙·바람·쓰레기 등 소재 다양한 실험

지난 7일(현지시간) 찾은 독일 중부 헤센주 카셀(Kassel·면적 106.79km) 프리데리치아눔(Fridericianum) 전시관 앞은 개막(9일)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5년마다 열리는 카셀 도큐멘타(Documenta) 개막을 앞두고 프리뷰 전시를 보려는 미술 관계자들이 물러든데다, 도심 광장을 비롯해 미술관·박물관·공전 정원·기차역·호숫가·벙커에 이르기까지 32개 장소에 전시장이 펼쳐지면서 인구 19만 6000명 가량의 소도시 전체가 모처럼 북적였다.

카셀 도큐멘타 준비 과정과 참여 작가들의 작품 제작 과정을 꼼꼼히 기록한 책자들이 전시된 서점도 발디딜 틈 없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다. 2차 세계 대전 때 도시 대부분이 폭격을 받아 폐허로 변했던 소도시는 이미 군수산업의 중심지였던 흔적 대신, 전 세계 55개국 150여 명이 이르는 유명 미술가들의 작품들로 채워

지면서 현대 미술의 중심지로 변신해 있었다. 9일 개막, 9월 16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는 제 13회 카셀 도큐멘타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현대미술제로, 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피폐해진 독일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전쟁 도발자라는 자괴감에서 벗어나고자 1955년 시작된 뒤 5년마다 열리고 있는 축제다. 상업성을 배제한 과감한 실험과 참여하는

정, 도전으로 현대미술의 흐름을 선도해오면서 세계 미술계에 '100일간의 미술관'으로 불리며 가장 주목받는 전시 가운데 하나다. 이 기간 찾은 미술애호가 등 관람객만 80만명에 이른다.

올해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담거나 학구적 진지함으로 무장한 다양한 개념 작품들을 끌어들이면서 미술 관계자와 관람객들의 눈길이 집중됐다.

총감독 캐롤린 크리스트프바르기에프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전시를 아우르는 하나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전시장에는 흙과 벌레에서부터 쓰레기로 만든 동산, 양자 역학, 텀 빈 전시장을 바탕으로 채운 작품까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작품들이 선을 보였다.

이 때문인지 글렌 로리 뉴욕현대미술관장, 오쿠이 엔위저 파리 트리엔날레 감독, 마시밀리아노 지오니(2010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2013 베니스비엔날레 감독, 니콜라우스 허쉬 독일 슈테델슐레 건축대 학장 등 미술계 저명 인사들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문경원·전준호의 작품에 출연한 영화배우 이정재와 임수정 이 한가롭게 전시관을 둘러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마시밀리아노 지오니는 현장을 둘러본 뒤 "한편으로는 미술사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전반에 대한 철학적·이론적 접근 방식을 접목한 전시"라고 평가했다.

한국에서도 1992년 육근병씨가 초청받았을 지 20년 만에 양혜규와 전준호·문경원 작가의 작품(뉴스 프롬 노웨어·News from Nowhere)이 초청돼 전시됐고 광주비엔날레 책임감독인 김선정 감독이 큐레이터 에이전트 팀원으로 참여했다.

/독일 카셀=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바람 솔솔~ 여름밤 식혀드립니다

중사모 '아외음악회' 내일 중외공원 아외음악당

광산구 첨단골 열린 음악회 등 광주 지역 곳곳에서는 다양한 아외음악회가 열리고 있다.

비엔날레 전시관, 문예회관, 시립미술관 등과 인접한 중외공원에서 아외음악회가 열린다.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외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중사모) 정기적인 아외음악회를 열기로 하고 첫번째 음악회를 오는 16일 오후 7시 중외공원 아외음악당에서 갖는다.

남도예고 국악과 사물놀이 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통기타 가수 기현수씨의 감미로운 포크송, 전차바이올린·트럼펫 솔로, 남성 테너·여성 소프라노의 환상적인 화음 등이 여름밤을 수놓는다.

'중사모'는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1년에 4차례 공연을 갖을 예정이다. 후원 및 공연 문의 010-6202-390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엄기준씨 '여성의...' 서양화 대상

무등미술대전 717점 수상작 선정



한국화 대상 왕에스더작 '꿈'

제 28회 무등미술대전에서 '꿈'을 출품한 왕에스더(25)씨가 한국화 부문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양화 부문에서는 엄기준(29)씨가 '여성의 심상이미지'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전남발전협의회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회는 14일 비엔날레 전시실에서 1237점의 출품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한국화·문인화·서양화 등 9개 부문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미술대전에는 대상 8점, 우수상 18점, 특선 199점, 입선 492점 등 717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자 명단 광주일보 홈페이지 참고)

부문별로는 ▲문인화 박지영 '매화' ▲수채화 지진영 '숨을 쉬다' ▲판화 이성욱 '평화' ▲공예 최기림 '정서화' 부문에서는 엄기준(29)씨가 '여성의 심상이미지'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조각 부문에서는 대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대상 수상자들에게는 부상으로 각각 300만원을, 우수상은 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비엔날레 전시실에서 열린다.

또 같은 장소에서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수상작 전시가 이뤄진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벨기에 '마니페스타'

도시에서 도시로... 유목 비엔날레

29개국 109명 참여... 한국 임민욱씨 출품

특정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부유하면서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는 '유목민'(nomade)의 삶이 오늘날 현대인의 전형적 생존 전략이라면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다니는 마니페스타는 유목 비엔날레로 표현할만한 전시다.

벨기에 탄광지역인 겐크(Genk) 지역을 중심으로 열리는 제 9회 마니페스타(Manifesta)

도 유럽 미술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대표적 전시 중 하나다.

행사 2주 전부터 개최지 주변 호텔은 미술 애호가와 관광객들로 방값이 두배로 뛰었고 그나마 빈 방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소도시인데다, 밤 9시가 되도록 해가 지지 않는 탓에 레스토랑과 호프집도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유럽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2년마다 열리는 현대미술 비엔날레인 마니페스타는 카셀 도큐멘타에 앞서 지난 2일 개막, 9월 30일까지 벨기에 겐크, 하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지역의 전시장으로 나눠 열리고 있다.

이번 마니페스타는 "The Deep of The Modern(근대화의 심화)"라는 주제에 맞춰 29개국 109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유럽 전역의 문화 예술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예술과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꾀하고 있는 측면도 적지 않다. 지역민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술축제다.

과거 탄광 지역으로 산업화 시대 중심지역이던 겐크 지역의 쇠락하는 전시 주제와 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미술 애호가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과거 강도로 사용됐던 낡은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물을 전시장으로 사용하면서 주제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공간이 가져다주는 매력을 전시에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도시화와 산업화를 추구해온 사회를 미술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강력한 인상을 심어줄만한 작품이 눈에 띄지 않는 점과 주제에 지나치게 집착, 자료 중심의 전시를 보이거나 전시 장소가 지나치게 멀리 분산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국내 작가로는 2006년 광주비엔날레 때 참여작가로 활동했던 임민욱씨가 '국제호출 파수'라는 작품을 부대 전시에 출품해 눈길을 끌었다.

/벨기에 겐크=김지을기자 dok2000@

since 1982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아이엘리시아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